

문화기획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문화행사 평가

문화공연으로 대학생할 배운다

지난 24일 92학년도 신입생을 맞는 축하행사의 오리엔테이션이 잠실올림픽공원에 역동경이장에서 열렸다.

1부 '축하와 선포' 2부 '나의 대학생활' 3부 '공동체놀이와 대합창'의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 행사는 1부 '새날맞이 한마당' 선포를 필두로 풍물패의 공연과 연합노래패 공연, 한빛문화회의 축시낭독으로 축하행사가 이어졌으며 거수단일장과 단과대 학생회장소 및 축하행회장 축사가 있었다.

2부는 연합노래패의 노래감수와 신입생들에게 들어본 '지금의 나' '잠잠소'와 오동길칼럼등이 동아리소개와 함께 이어져 신입생들에게 흥미와 공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3부 공동체놀이와 대합창 '가야하네'는 신입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율동과 노래를 배우며 서로 하나되는 분위기를 연

출했다. 무리없는 진행과 잠잠소, 오동길칼럼등으로 흥미를 자아낸 축하의 새날맞이 한마당은 10일 남짓의 길지 않은 준비기간으로서는 깔끔한 전체적 분위기를 자아냈다

다양한 행사로 자발적인 참여 유도 공감대 형성할 새로운 공연양식 절실

만 2부의 잠잠소와 오동길칼럼은 MBC TV의 '일요일 일요일밤에'를 비판없이 그대로 모방했다는 측면에서 재미는 있었지만 대학생으로서 지나치게 오락위주로 흐르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고 또한 정제거로 뛰어들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김동길 교수의 흥재를 낸 것 또한 매끄럽지 못했다.

이후 각 단과별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 문과대와 정경대의 문화공연은 작년에 비해 새로워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탱고와 캐쉬' 상영에 이어서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초청강연회를 통한 신입생들의 의식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하게 한다며 신입생들과 재학생 모두에게 경증을 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정경대는 노래패 '동트는 새벽'과 극단 '태' '두레박'의 새 공연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공연함으로써 이들 공연을 선택하고 관람하는 데 있어 신입생들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문화공연이 갖는 타당성을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문과대의 강연회는 그 내용 자체가 신입생들이 함께 공유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이었고 강사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엿볼 수 없어 아쉬웠으며, 정경대의 문화공연은 선택이긴한데 그 선택범위가 좁아서 취지에 맞는 진행이 어려웠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문화공연은 아직 대학생활에 대한 느낌을 신입생들에게 공연이라는 색다른 매개체로 보다 우회적으로 알려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선배들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거 리감들을 노래공연과 연극, 풍물극등 대학의 대중문화를 통해 그 속에 담겨 있는 의식의 공감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문화공유라는 큰 파급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오리엔테이션 문화공연의 내실을 평가할 때 짧은 준비과정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문화공연이 이루어졌고 또 새로운 시도로 흥미를 유발한 것들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중놀이와 같은 문화 행사가 좀 더 많이 정착되었으면 한다.

(김일형 기자)

자존심 있는 아마추어 가수 - '탈무드' 리더싱어 김태희양을 만나



강한 인상도 특징도 없는 곱고 가쁜 얼굴, 반달눈의 해맑은 미소. 수원캠퍼스 락그룹 '탈무드'의 11번째 리더싱어가 된 불문과 2학년 김태희양.

그녀는 대학의 막내동생이지만 자신의 그룹활동에 자존심을 걸고 맹활약 하고 있는 의기있는 연예인이다.

가수 김태희를 좋아한다는 김태희양은 다음주로 예정된 신입생을 위한 공연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넓은 음역을 바탕으로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김양은 가끔 학교 옥상에서 혼자 발성연습을 할때면 여러가지 사색에 잠기기도 한다고 얘기한다.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지난 80년 창립한 '탈무드'는 그동안 인기가수 권인하, 변진섭등을 배출한 역량있는 락그룹이다. 태희양은 리더싱어에

기도 한다. 또한 학생들이 악을 악을 외국의 퇴폐문화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락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다른 방법으로 올바르게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대학생활의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다고 말하는 그녀는 다정다감한 부모님, 할머니, 오빠와 함께 살고있다. '알람시계'처럼 하나하나 챙겨주는 오빠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지만, 대학에 들어온 이후로는 자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한다. 지난 1년동안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밝히는 그녀는 한사람 한사람을 사귀면서 또다

른 '나'를 사귀는 것 같다고 하며, 그 속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사는 삶을 배웠다고 말한다.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 굳어졌을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현재 그녀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한다. 이제까지 너무 개인적인 삶에만 매몰되어온 것 같아 앞으로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키워나갈 계획이라며, 지식인으로서 보다 성숙한 면모를 기억하고는 젊은 만남을 마무리 했다.

(이금주기자)



문화단신

'탈반'... '밥' 공연

'탈반'은 신입생 환영회의 일환으로 김지하씨의 소설을 극화한 '밥'을 오는 12일과 13일 5시 30분에 임강교실에서 공연한다.

'밥'은 '연희회'가 공연한 적이 있는 작품으로 '민족극 대본선'에 실린 내용을 '탈반'이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구성하였다.

한편 '탈반'은 지난 2월 20일 경 대본선정등을 마치고 28일부터 대본연습을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노찾사' 신입단원 모집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12일까지 건강한 노래문화

창달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문적 기량을 갖춘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사무실에서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가수와 연주(기타, 베이스 기타, 건반, 드럼) 두 부분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면접 및 실기로 최종확정된다. <문의: 338-9948>

'터울림' 풍물감습

풍물패 '터울림'은 '정기 풍물감습'을 오는 2일부터 26일까지, 4월 2일부터 27일까지 두차례 실시한다.

3월은 중급감습으로 판굿, 민요, 풍물이론을, 4월은 초급감습으로 풍물기본장단, 민요, 풍물이론을 감습하며, 회비는 3만원이다. <문의: 354-7302>

열린 공간 대학주보는 독자여러분과 함께 지면을 꾸미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창조적 노력이 깃든 시, 소설, 수필, 콩트, 평론 등 문학작품은 물론이고 사진, 그림 등 모든 장르의 창작품을 기다립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서울) 961-0095 (수원) 0331-280-2056>

티피코시 시리즈-①



“나 갈게, 잘 해봐!”

(가짜 분위기)
여: (신경질난 듯이) 뭐야?
남: (잠못을 들긴 것처럼) 뭐?
여: (따지듯이) 왜 자꾸 저 여자만 보냐?
남: (혼잣말: 치, 생각하면 저도 티피코시를 입지)(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냐, 그냥...
여: (혼잣말: 나도 티피코시를 입었는데...)
여: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나 갈게, 잘 해봐!
남: (놀라서) 아니, 저...

티피코시는 패션의 사랑싸움. 하찮은 것에서 시작되는 사랑싸움, 슬기롭게 극복하십시오.

반도패션이 만드는 젊은 캐주얼
티피코시